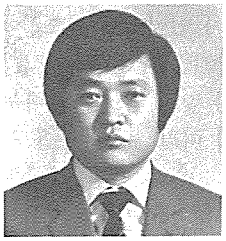
全羅北道支部篇



全炯直 支部長

지부장인사

지부순례란을 통하여 처음으로 전국회원 및 편집관계자 여러분에게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건축사지에 본란을 기획하고 편집함으로써 여러지부의 현황과 사정을 알게되는 계기가 되고 이를 토대로하여 미흡했던점 개선해야될점 등을 연구할 수 있게된 것은 대단히 보람된 일이라 생각되어 새삼 깊은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 협회도 설립된지 20여년 온갖 시련과 역경을 디딛고 떳떳하고 의젓한 성년을 맞이하였읍니다. 창립당시와 지난 과거를 회상하여 볼 때 이 엄청난 발전에 엄숙한 역사의 순간을 대하는 경건함과 깊은 감회를 억제할 수 없읍니다.

이러한 발전은 결코 몇몇회원만의 힘이 아니요 회원총화의 소산이며 거룩한 회원의 상아탑이라 아니할 수 없읍니다.

그러나 양적인 비대가 질적인 향상만을 의미할 수 없다는 생각에 미칠때는 아직도 요원한 아쉬움을 안겨줍니다.

내적인 질량감·외적으로의 지위향상, 나아가 회원의 복리증진 등, 아직도 이룩해야될 숱한 과제가 남아 있읍니다.

진정한 창작예술을 위한 토대는 아직도 안정된 것이라 생각할 수는 없읍니다.

이제 부터가 우리의 최대한의 힘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지위는 우리의 힘과 인격으로만이 상승시킬 수 있을 것이고 총력으로 복지향상에 주력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적은 이익에 집착하지 않는 대범성으로 대의를 위하여 매진할 수 있는 회원총화가 더욱 절실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회원 여러분의 건투를 빌며 인사에 가름합니다.

성 장 과 정

법률 제1536호로 제정 공포된 건축사법에 의하여 인주성회원외 7 인이 1965년10월16일 회동하여 발기를 하였다.

이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1965년11월 18일 전라북도 공보관에서 건축사 12인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초대 김성근지부장을 선출하고 간사 3 인과 감사 2 인등의 임원을 선임하여 전주시 경원동 1 가128번지에 사무실을 개설 함으로써 명실공히 대한건축사협회 전북지부가 결성되었다.

지부 출범이래 두번의 사무실이전을 거쳐 1980년 2 월17일 전주시 서노송동 635번지 대륙빌딩(508호)에 41평의 그리넓지는 않지만 불편없는 공간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또한 지부소속회원 57명이 전주를 비롯한 군산, 이리, 정주, 남원시 및 김제, 부안, 고창군등에 주재하여 건축사사무소 47개소로 분포되어 있으며 지부산하에 군산, 이리의 2 개분소가 설치되어 각각분소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위에서 기술한바와 같이 창립당시의 회원이 17인이 오늘에 57명이라는 많은 숫적증가가 있었으며 회원의 업무실적으로도 1971년에 229, 801평방미터에서 1984년에는 1, 232, 619평방미터로 약6배의 업무 신장이 되었다.

그러나 이 업무의 신장이 과연 회원의 실적업무 및 소득의 증가라고 볼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그 이유는 타지부 회원들의 무분별한 업무의 침식으로 도세가 약한 본 지부회원들로서는 왕왕이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에 봉착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대형건축물에 대한 업무수탁은 연고권이나 사무소시설미비라고 자위한다손 치

드라도 비정당한 보수로 소형건축물까지 업무침식을 감행한다는 것은 우리 전국 회원이 자성해 볼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회원의 총화를 통한 건축사의 업무의 정상화와 회원복리증진을 목적으로 1977년 전북지부건축사 공재회를 발족하여 온갖시련과 난관을 극복하고 제정비하여 오늘의 전북건축사 복지회가 운영되어 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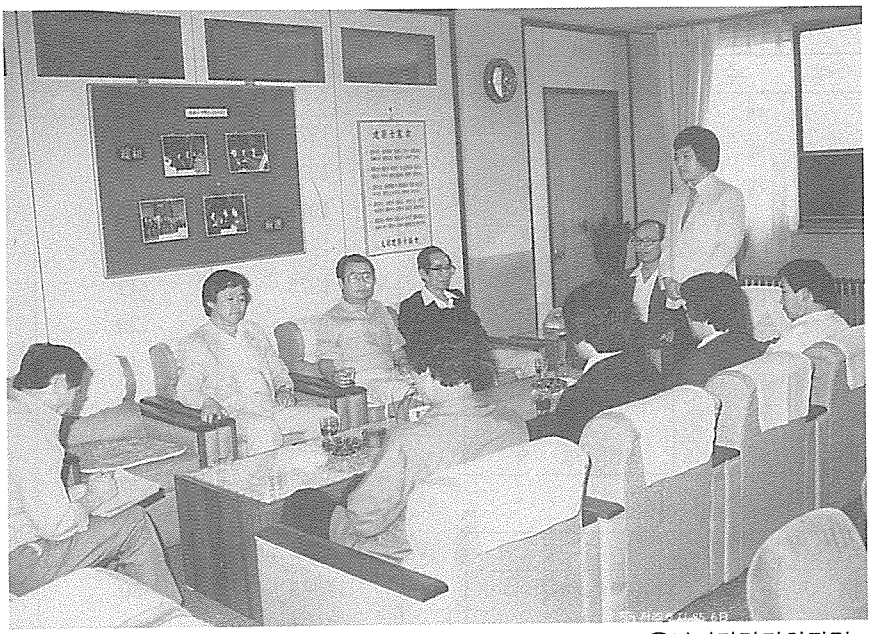
이를 통하여 지부사업을 보조하면서 한정된 업무의 영역을 넓히고 조형창작 예술인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견지하면서 사회사업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1977년도의 이리역 대형폭발사건에 따른 피해건물과 1978년도의 부안 계화도 수몰 이주민 주택의 주민안전을 위한 건물안전진단 등을 통해 피해복구에 전회원이 무료봉사하며 사회사업에 적극참여함으로써 협회의 홍보와 더불어 건축사 이미지 쇄신에 기여하였고 회원의 전체적인 복리증진에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또한 도복지회에서는 아직까지 지부회관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음을 통감하여 회관건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원의 업무실적에 따라 회관건립기금을 적립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기금이 계속증가 확보됨으로써 1983년 4 월22일 전주시 덕진동 2 가189－4 번지의 대지를 4,000여만원에 매입하여 83년 7 월21일 등기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적립된 현금이 약 7,700만원이 확보되어 있으므로써 머지 않아 지부회원의 염원인 회관건립이 실현되리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초창기에 혼란과 어둠속에서 이제는 명실공히 건축계를 주도하는 대표적 기구로 성장 발전함과 동시 각종 지역사회의 개발위원으로 위촉되어 지도자적 위치가 확보됨에 따라 회원의 권익신장과 지위향상에 많은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다.



유관기관간담회광경

임 원 현 황

직 위	성 명	사 무 소 명	전 화	비 고
지 부 장	전 형 직	동서건축사사무소	2－4983 6－7208	전주
간 사	최 석 규	삼인건축사사무소	2－5033	전주
	박 옥 규	군산건축사사무소	2－3453	군산
	조 용 선	유진건축사사무소	2－8732	이리
이리분소장	문 상 식	건축사사무소 신도	52－3796 · 3304	이리
군산분소장	문 준 영	도시동인건축사사무소	2－4060	군산
감 사	송 천 규	삼인건축사사무소	2－8667	전주
	유 철 갑	유림. 전라건축사사무소	75－7801～03	전주

기타주요업무및사업실적

1. 위법건축물의 발생을 방지하고 위법건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건축행정질서확립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주, 군산, 이리에 자율건축현장 상설 점검반 운영

2. 원활한 건축행정수행과 행정관서와의 유대강화를 위해 대관청 및 회원 연석 간담회 실시

3. 선진외국의 건축정보수집 및 현지시찰 추진

4. 건축물의 질적향상을 꾀하고 위법

역 대 지 부 장

대 수	지 부 장
초 대	김 성 근
2 대	신 상 희
3 대	조 재 현
4 대	최 석 규
5 대	이 영 수
6 대	김 사 옥
7 대	김 광 서
8 대	김 철 수
9 대	문 상 식
10 대	전 형 직

관할별 회원현황

구 분	회 원 수	관 할 구 역
지부직할	37	전주및분소관할외지역
군산분소	9	군산, 옥구
이리분소	11	이리, 익산
계	57	

년도별 회원수 및 도서신고현황

구분 / 년도	회 원 수	도서신고건수	연 면 적(M²)
1971	26	1, 973	229, 801
1972	28	2, 207	285, 314
1973	34	3, 636	460, 835
1974	37	4, 225	497, 937
1975	41	4, 145	518, 783
1976	35	3, 952	476, 925
1977	45	4, 624	759, 294
1978	44	6, 019	1, 165, 452
1979	48	6, 014	1, 143, 740
1980	47	6, 324	1, 273, 269
1981	47	6, 315	997, 580
1982	49	6, 115	1, 243, 837
1983	50	5, 246	1, 248, 344
1984	54	3, 976	1, 232, 619
1985	57	2, 626	751, 178 (85년 7 월 말현재)

건축물 발생의 방지를 위한 공사감리반 설치 운영

5. 대민의 편리 도모를 위한 건축행정민원상담실 운영

6. 회원 및 건축사보 업무 강습회 실시

7. 회원사무소 실태조사(2 회)를 실시하여 운영실태 파악과 업무지도 실시

8. 업무의 능률화와 보조원 관리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보조원 수첩발급 및 보조원 기록카드작성관리

9. 농촌 일손돕기운동 전개

10. 본도체육발전과 도민일체감 조성위해 전북 태권도협회와 자매결혼을 맺고 체전 성금전달(100만원)

11. 자율 정화활동 적극 추진으로 정화운동 참여 의식고취와 질서확립 유도

지부운영방침및진로

어려웠던 지난 과거를 거울삼아 앞으로도 계속 다가올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역량과 기틀을 다지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회원총화에 최선을 다 하여야 겠다.

첫째 : 수시 친목행사 및 모임을 실시하여 회원일치감을 조성하고,

둘째 : 각종 사회사업에 참여하여 지원하고 국민의 신뢰와 친근감을 유발하여 협회홍보와 아울러 건축사 이미지 쇄신에 기여하며,

셋째 : 회원 복지회를 계속 연구발전시켜 회원 복리증진에 최선을 기하겠으며,

넷째 : 건전한 건축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각종회의를 통한 건축사의 의식개혁 정신함양과 작품향상을 위한 국제교류를 적극 추진하고,

다섯째 : 회원의 염원인 지부회관건립을 기필코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여섯째 : 회원의 애로점 타개 및 건축행정의 발전과 도약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수시 간담회를 개최 회원의 권익옹호에 최선을 다 하겠음.

본회에 대한 건의

1. 지부와 원거리에 있는 남원시와 정주시 주재 회원의 업무편의를 위하여 2 개분소의 설치 요망

2. 행정능률화를 꾀하기 위해 본협회의 사무기기 현대화를 추진하여 이첩공문 등을 일관서류 작성하여 지부의 업무량 경감을 요망

3. 회원의 노후 대책을 위한 장기계획 수립시행 요망.

〈다음호 전라남도지부편〉